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홀리데이 시즌 수요 감소... 추가 인력 줄인다
- WSJ: 연준 금리 인하, 골드만삭스 "내년 2년간 큰 폭", 골드만삭스는 반대 '아주 소폭'
- WSJ: 미 저임금층 임금 상승은 끝났다

[에너지]

- WSJ: 낮은 유가 계속될까?
- Bloomberg: 브레트 가격, 3주간 하락후 81불에서 보합세 유지

[주택]

- CNN Business: 주택 구입하려면 작년보다 수입이 22% 높아야
- Bloomberg: 주택 구매자 평균 연 소득 10만7천 불, 독신 여성 비중도 증가

[미중관계]

- Bloomberg: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Home Depot과 Lowe's, 슬럼프...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탓
- WSJ: 구글, 자사 AI 제품 이용한 사기범에 첫 소송제기
- CNN Business: 현대 자동차, 한국 새 전기차 생산 공장에 2조원 투자
- WSJ: 타겟, 연말 매출 회복 모색하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Holiday Hiring Demand Drops Off, a Warning for the Job Market 미 홀리데이 시즌 수요 감소... 추가 인력 줄인다

- 지난 수년동안 미 기업들은 진열대를 채우고 패키지 배송할 인력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올 가을에 홀리데이 시즌에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
-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확인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관련 서비스 회사인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올가을 공개 채용이 10년만에 최저치를 떨어졌다.
- 그리고 전미소매연합(NRF)은 올해 계절 근로자가 34만5천명에서 44만5천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최고치에서 40%나 감소한 수치다.
- 해운 회사 XPO는 올해 마지막 3개월간 인력을 추가하지 않고, 연방 우체국도 지난해 시즌 근로자의 3분의 1만 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Diverge on Fed Rate-Cut Forecasts**연준 금리 인하, 골드막삭스 "내년 2년간 큰 폭", 골드만삭스는 반대 '아주 소폭'**

- 요지: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향후 2년간 큰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에 골드막 삭스는 인하폭이 적고 그 시기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 전망에서 연준이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9월과 4분기 이후 매 회의마다 각각 25베이스스 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정책금리가 2.375까지 낮아지겠다는 것.
-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침체는 아니지만 큰 규모이 양적 완화가 필요한 경제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업률이 2025년에 4.3%로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장률과 인플레도 연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자세한 2개 은행간 금리 전망 비교는 아래 도표 참조

WSJ 기사

WSJ: The Low-Wage Pay Surge Is Over, Threatening the Consumer Boom
미 저임금층 임금 상승은 끝났다

-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특히 저임금층이 이에 속한다.
- 이에 따라 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 분보가 하위 4분의 1의 경우 10월 임금 인상이 5.9%로 1월의 7.2%에 비해 떨어졌다.
- 전체 근로자의 증가율은 6.3%에서 5.8%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WSJ 기사

[에너지]**WSJ: Can Lower Gas Prices Last?**
낮은 유가 계속될까?

- 미국산 벤치마크 원유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9월 최고치 대비 20% 감소했다가 지난 금요일 77불17센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여전히 시장이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가격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시장 후퇴는 사우디 주도 OPEC와 러시아 주도 동맹국들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
- 제조업 경기 둔화, 중국의 불확실한 경제 전망, 달러 감세에 따른 동남아시아의 수요 증가세가 꺾였다.
- 월가 분석가 에 따르면 전세계 저장 탱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Holds Run of Weekly Drops With Focus on Demand Outlook

브레트 가격, 3주간 하락후 81불에서 보합세 유지

- 3주간 동안 약 12% 가격이 줄어 둔후 현재 변동없이 거래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수요 우려 때문에 매도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올해 내년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고, 오는 2024년에도 견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은행은 또한 내년 가격 전망을 92달러로 하향조정했다.
- OPEC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과장되어 유가 하락을 이끌었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펀더멘털이 건강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이 견조하다고 긍정평가했다.
-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곧 수요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N Business: US homebuyers needed to earn 22% more last year to afford a home

주택 구입하려면 작년보다 수입이 22% 높아야

-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주택 구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미국내 전형적인 주택 구매자의 연소득이 8만8천불에서 10만7천불로 상승했다.
- 이같은 22% 상승 수치는 사상 최대 연간 상승률인데 중간 소득이 7만5천불 수입으로는 주택 구입이 힘든 상황이다.
- 지난 2년간 모기지 급등에 재고도 줄어 가격 상승 때문에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Typical US Homebuyer Earns \$107,000 and Is More Likely to be a Single Woman**주택 구매자 평균 연 소득 10만7천 불, 독신 여성 비중도 증가**

- 미 주택 구매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올해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독신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올해 주택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한 증거로서, 최근 판매된 주택들은 평균적으로 시장에 나온 지 2주 만에 판매가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올린 최종 가격 그대로 팔렸다.
- 주택 구매자의 평균 수입은 작년 8만8천 달러에서 올해 10만7천 달러로 뛰었다.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평균 나이 또한 증가해 35세를 기록했다. 1980년대 초에 주택 평균 구매 나이는 29세였다.
- 최근의 주택 구매에서 부부 구매자의 비중은 감소해 59%로 떨어졌으며, 이는 2010년 이래로 최저치이다. 반면, 미혼 구매자 비중은 9%로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독신 여성 주택구매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Bloomberg 기사

[미중관계]**Bloomberg: Everything Biden and Xi Need From Their Summit—Starting With Each Other****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은**

- 경제 이슈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가 오늘날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 주석이 중국 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중국의 경제는 2022년 10월 엄격한 팬데믹 통제 조치가 해제된 이후로 회복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초기 폭발적인 성장 이후, 부동산 위기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었다.
-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를 완화하는 등의 글로벌 문제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은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Home Depot and Lowe's Face Slump From Higher Rates and Housing Prices**Home Depot과 Lowe's, 슬럼프...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탓**

-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판매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Home Depot과 Lowe's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일 화요일에 발표될 Home Depot과 일주일 후에 발표 예정인 Lowe's의 3분기 실적은 4회 연속, 전체 매출은 연속 3회 감소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 Home Depot과 Lowe's의 주가는 오늘 오전 9시 38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모두 1%보다 적게 하락했다. Home Depot은 올해 초 이후 8.4% 하락했고, Lowe's는 약 2.5%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WSJ: Google Sues to Block AI Ads Preying on Small Businesses**구글, 자사 AI 제품 이용한 사기범에 첫 소송제기**

- 사기범들이 미국 중소기업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훔치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열풍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구글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 오늘 월요일에 제기된 소송은 인도와 베트남에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구글은 해커들이 중소기업 소유주들을 속여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인 Bard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Facebook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 광고를 클릭할 경우, 클릭한 사람의 계정이 해킹당하게 된다.
- 구글의 법률 고문인 Halimah DeLaine Prado는 이번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구글이 자사의 AI 제품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이며, 직접 사건에 개입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Hyundai plans to make 200,000 EVs a year at new plant in South Korea**현대 자동차, 한국 새 전기차 생산 공장에 2조원 투자**

- 현대 자동차가 한국에 2조원 규모의 공장 건설을 착수했다. 이번 공장은 전기차 차량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다.
- 새로운 공장은 한 해 20만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가질 예정이다. 새 공장은 2025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전기차 대량 생산은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 또한 현대 자동차는 조지아에 전기차와 관련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5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WSJ: Target, After a Year of Misfires, Looks for Holiday Cheer 타겟, 연말 매출 회복 모색하다

- 타겟과 이 기업 CEO인 Brian Cornell이 투자자들로부터 어떻게 이번 연휴 시즌에서 매출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받고 있다. 타겟의 주가는 지난 2년 동안 60% 떨어졌으며,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경쟁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음식과 빠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얻고 있다.
- 타겟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고객들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방식에 있다. 타겟은 대부분의 수익을 베개, 작은 가구 그리고 의료 같은 비식품 상품에 서부터 얻는다. 그러나, 올해 이런 제품군에 대한 소비가 감소했으며, 고객들은 음식, 서비스 그리고 문화에 더 많이 소비하는 추세다.
- 시티뱅크의 소비 분석가인 Paul Lejuez는 이런 상황이 타겟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만약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한다면 타겟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판매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파월, 내달 금리동결 하더라도 내년 인상 가능성 열어놔"

WSJ "향후 정책 관련해 긴축 쪽에 무게 뒤편 투자자 실망" "수개월치 데이터로 인한 오도 및 너무 높은 금리 모두 피할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준금리의 동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쪽에 힘을 실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이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아예 문을 닫아두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최근 물가와 임금 압력이 완화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고 믿게 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